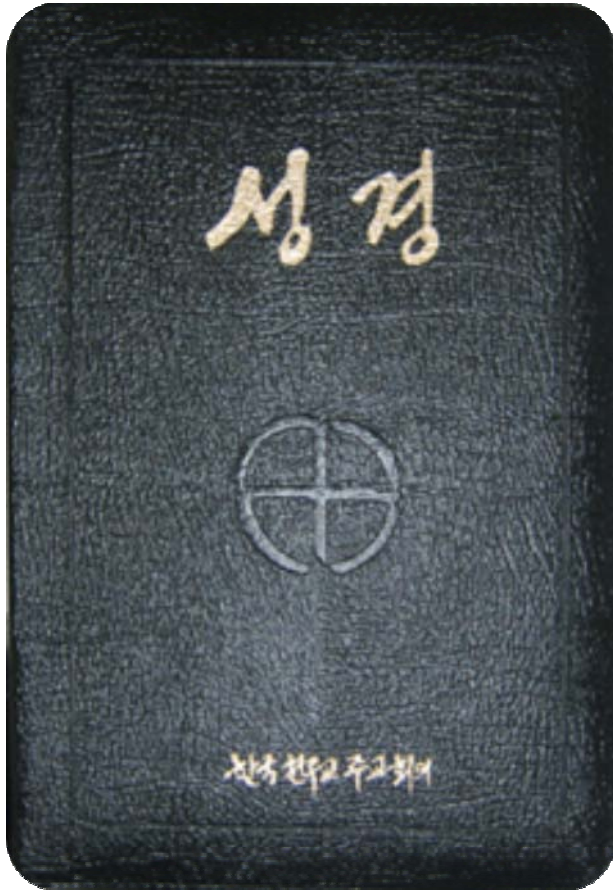


새성전 이전 봉헌을 위한 성경 필사

1. 기본 원칙



1. 필사 성경 모델

- 주교회의 발행 1단 성경
 - 2005년 이전에 발행된 구성경은 참조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성경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2. 검은색 볼펜으로 필사합니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액을 이용하여 수정 가능하지만, 수정을 너무 자주하여 지저분해질 경우에는 새 용지에 다시 필사합니다.

3. 필사 용지는 반드시 성당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합니다.
 - 스캔하여 프린트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타자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손글씨로 필사합니다.
5. 장 (Chapter)과 절 (Verse)이 모두 일치한다면, 한글과 영문 모두 필사 가능합니다.
6. ‘성서를 읽기 전과 읽은 후 기도문’을 이용하여 필사 전후에 기도합니다. (성당 웹사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 기도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 로마 10,8-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서를 읽은 후 기도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 105-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 본 필사 방법 안내서는, 신앙의 해를 맞아 현재 수원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신자 성경 필사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당의 영성 교육 분과장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필사중에 생길 수 있는 궁금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내를 드리기 위함이며,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특정 성경 필사 형식이 있다면 본 안내서의 지침과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2. 성경 본문

71 창세기 1장

창세기

1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 땅은 아직
1 풀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
2 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3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4 ◦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5 가르시어, ◦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
6 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7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8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9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10 ◦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11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12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13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하나님께서는 물
14 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15 좋았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
16 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17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
18 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
19 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
20 날이 지났다.

21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22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 그리고
23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
24 로 되었다. ◦ 하나님께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
25 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26 7) 또는 ‘입김, 열, (강한) 바람’

3. 필사 방법

2 책이름은 두글자로 되어

창 세

3

장 | 절 ~ 장 절

장과 절의 표기는 시작 절과 끝 절만 한다. No.

약어를 사용한다.

창 세 기

여백에는 필사

새로운 용지에 필사를 시작할때, 용지의 왼쪽 여백이 넓은 쪽부터 쓰기

4

큰제목 (현재 예제에서는 '창세기')와 소제목 (현재 예제에서는 '천지 창조') 사이에 3줄을 뚫다.

하지 않는다. 제본시, 훼손될 우려가 있다.

시작한다. (제본시 천지 창조

띄어쓰기나 들여쓰기는 성경과 최대한 비슷한 모습

7 절 표시(o)를 하지

앞면을 통일하기 위함이다.)

창

11으로 한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5

땅은 아직

1

6 끝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위로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 날이 지났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8 필사한 날짜, 본명, 소속 구역/반을 기입한다.

날: 2013년 2월 24일 | 쓴이: 전지연 에스더 | 캠펠 구역 6 반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늘에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큰 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늘에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라.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늘에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

1

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
 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두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
 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옛날이 되었다.

7

하나의 장이 끝나면 다음 장은 새로운 페이지에 필사를 한다.
 하나의 장이 끝날때 여백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여 필사를 하면 좋다.

9

8

11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이렛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10 소제목 (현재 예제에서는 '에덴 동산') 이 나오면 1줄을 뺐다.

에덴 동산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덩굴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랑에는 브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